王安石의 「明妃曲」과 歐陽脩의 和答詩 考察

俞泰揆*

目 录

1. 들어가는 말
2. 시대 배경 및 창작 배경
3. 王安石의 「明妃曲」감상
4. 歐陽脩의 和答詩 감상
5. 맺는 말

1. 들어가는 말

王昭君은 漢 元帝 시기에 궁녀로 선발되어 입궁하였다. 당시 궁중에서 궁녀가 황제의 은총을 받는 방법은 화공이 궁녀의 초상을 그린 뒤, 이를 황제에게 올리고, 황제는 초상의 美醜에 따라 간택하는 것이 오랜 관습이었다. 그러나 궁녀들의 초상을 전담하는 화공들은 초상을 그리면서 뇌물을 착복하는 것을 오랜 관행처럼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궁녀의 초상은 뇌물의 유무와 액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史書와 小說 類의 기록에 근거하면 昭君의 용모와 자태는 궁녀 중에서도 천하일색이었지만, 그녀의 강직하고 고결한 성격으로 인해 화공에게 뇌물 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수년간 결국 황제의 은총을 받지 못하였다.

漢 나라는 서북방의 강성한 흉노와 전쟁을 벌이지 않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和親 정책을 취하여 흉노의 남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

* 韓國交通大學校 中國語科 敎授

www.kci.go.kr

였다. 한 高祖 이후에서 元帝 시기까지 和親 공주로 흉노의 單于한테 출가시킨 여자는 모두 13명에 달한다. 이 중 高祖 시기부터 武帝 시기 까지는 황실의 宗室 여인을 和親 공주로 파견했지만 유독 元帝 시기에만 궁녀 신분인 昭君을 和親 공주로 파견하였다. 이것은 흉노가 내분으로 인해 세력이 분열되자 漢 元帝가 宗室의 공주 대신 궁녀를 和親 공주로 出嫁시키려 했다가 그만 元帝가 만날 수 없었던 昭君이 희생양이 되어 單于한테 下賜 된 것이라고 추측된다.

昭君 고사는 竟寧 元年(B.C33), 궁녀 신분인 昭君이 흉노의 呼韓邪單于한테 출가했던 역사적 사실이『漢書・元帝紀』와『漢書・匈奴傳』에 기록된 이후 비롯되었다. 이후, 悲劇性과 大衆性을 두루 겸비한 昭君 고사는 시공을 초월하여 줄곧 문인들의 창작 제재가 되어 다양한 작품으로 창조되고, 또한 민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구전되고 있다.[1)]

宋代의 王安石이 昭君 고사를 제재로 하여「明妃曲」[2)]을 지은 것은 흉노 출가로부터 계산하면 대략 일천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오랜 역사가 지난 후에 王安石은 어떤 의도로 昭君을 제재로 한 시를 남기게 되었을까? 당대의 문장가이면서 개혁적인 성향을 지닌 그가 돌연 昭君 고사에 심취하여 시가를 남겼다면, 이는 단순한 흥미와 호기심의 차원이 아니라 昭君 고사가 지니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혹은 정치적인 입장과 관점이 그의 관심과 시선을 끈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王安石은 宋 仁宗과 神宗 치세 하에서 관리에 입문하고, 성장하면서 정치적 포부를 펼치려고 시도하였다. 1058年 仁宗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자신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그 이듬해, 1059年에「明妃曲」을 지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치개혁을 염두에 둔 의도로 보인다.

---

1) 史書인『漢書』와『後漢書』의 기록 이후, 小說 類인『西京雜記』와『世說新語』에도 관련 기록이 있고, 唐代의『全唐詩』에는 昭君을 소재로 한 시가 약 80여 수가 전하는데, 唐代를 대표하는 李白, 杜甫, 白居易 같은 문호들도 관련 시를 남기고 있다.

2) 王昭君의 본명은 王嬙이고 字는 昭君이다. 明妃란 晉 文帝 司馬昭의 이름을 휘하기 위하여 채택한 호칭이다.

www.kci.go.kr

歐陽脩는 정계의 거두로 문단의 대선배로 王安石의 정치 역정과 문학적 방면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를 신진 관료로 이끌었다. 정치적으로 문학적으로 대선배이면서 당시 조정의 실세 중의 일원인 歐陽脩가 자기보다 한참 연하이고, 하급 관리인 王安石의 「明妃曲」이 나오자 이에 바로 和答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동료의식이나 경쟁의식에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아마 「明妃曲」이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키고, 작품 중에 宋代 사회의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에 이에 상응하는 和答詩를 남기게 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두 수가 태동하기까지의 시대 배경 및 창작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 王安石의 「明妃曲」과 歐陽脩의 和答詩에 대한 감상을 통하여 두 시가 갖추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와 의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시대 배경 및 창작 배경

王安石(1021~1086)의 字는 介甫이며, 號는 半山이고, 諡號가 "文"이기 때문에 세칭 王文公이라 했고, 스스로는 臨川先生이라 自號하였으며, 만년에 이르러 荊國公에 봉하여져 臨川先生 또는 王荊公으로 불렸다. 그는 중국 역사상 대단히 훌륭한 정치가이자 사상가이면서 문학가이며 개혁가이고, 당송팔대가에 속하는 문장가로서 이름이 높다.

王安石은 北宋을 대표할 수 있는 위대한 문인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지만, 관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정치가가 지녀야 할 야심과 열정이 매우 강렬했던 인물이다. 이런 점 때문에 王安石의 詩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정치 역정을 이해해야 한다.[3)]

그는 어릴 때부터 지방 관리였던 부친을 따라 남북 각지를 전전하면서 사회 경험을 하고, 안목을 넓히었으며, 백성들의 고생을 목격하면서 쇠퇴하는 宋 왕조의 위기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는 宋 仁宗 慶歷 2

3) 류영표, 『王安石詩選』 서울: 문이재, 2003, 5쪽.

www.kci.go.kr

年(1042年)에 진사에 급제한 이후, 嘉祐 3年(1058年) 仁宗에게 「萬言書」[4]를 올려 개혁을 요구하였다.

王安石은 평생 약 1500여 수의 왕성한 시작활동을 하여 詩文 大使로 불린다. 그의 시는 修辭와 造句, 어휘사용과 문구의 퇴고에 심혈을 기울여 시문이 정교하면서 참신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시적인 감흥과 풍부한 상상력은 그 시대와 후대 문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시는 江寧으로 퇴거하기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되는데, 퇴거하기 이전의 시가들은 대부분 政治 詩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관찰하고 체험한 사회 현실의 문제들을 詩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歐陽脩(1007~1072)의 字는 永叔이고, 號는 醉翁, 혹은 六一居士라고 하며, 北宋 시기의 정치가이자 문학가로 명성이 높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시문 창작에 조예가 깊어 詩文 혁신 운동의 영수로 韓愈의 고문이론을 계승, 발전시키고, "文以明道"를 주창하여 형식주의 문풍과 시풍을 개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韓愈, 柳宗元, 蘇軾과 더불어 "千古文章四大家"라고 불리고, 당송팔대가 중 핵심 일원이기도 한데, 특히 팔대가 중 宋代의 五人은 모두 그의 門下에서 배출되었다. 이 때문에 그의 정치적인 지위와 산문 창작상의 큰 업적은 종종 唐代의 韓愈에 비유되기도 한다. 또한, 그는 王安石, 曾鞏, 蘇洵, 蘇軾, 蘇轍 등과 같은 산문가를 추천하고 지도하여 그들의 정치와 문학 창작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歐陽脩는 宋 仁宗 天聖 8年(1030年) 진사에 급제한 후, 정계로 입문하여 樞密副使,[5] 參知政事[6]를 제수받고, 刑部尙書, 兵部尙書 등과 같은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탄탄한 관료로서의 경륜을 쌓게 되었다. 그는 王安石보다 14살이

4) 宋 仁宗 嘉祐 3年(1058년)에 王安石이 황제에게 헌상한 개혁 요구서, 原名은 「上仁宗皇帝言事書」、「上仁宗皇帝萬言書」、「上皇帝萬書言」 등으로 불리는데 이하 「萬言書」라 간칭함.

5) 北宋 시기, 군사기밀과 변방의 업무를 담당한 樞密院의 장관급이 樞密使이고, 차관급이 樞密副使임.

6) 參知政事란 唐宋 시기의 최고 정무장관 중의 하나로 재상의 보좌 역할을 담당하는데, 오늘날의 부총리 급에 해당함.

www.kci.go.kr

많고, 또 정계 진출도 王安石보다 이른 12年 전에 시작하여 함께 宋 仁宗을 보좌하는 재상의 길을 걸었지만, 정치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항상 歐陽脩가 선배의 역할을 하였고, 王安石은 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歐陽脩의 정치사상은 전기에는 중소지주 계급의 이익을 반영하였고, 당시 경제, 정치, 군사 등의 위기상황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갖추고, 范仲淹 등과 함께 사회 혁신을 도모하였다.

王安石과 歐陽脩가 활동한 시기는 北宋 왕조의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4代 황제인 仁宗(1022年~1063年 在位)과 6代 황제인 神宗(1067年~1085年 재위)의 통치 기간이다. 仁宗의 집정시기 동안은 장기적인 평화로 인해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화폐가 출현하였지만, 대외 군사적으로는 북방의 遼와 서북지방의 西夏와 대치하고 있었다.

西夏는 1032年 河西 일대를 점령한 후, 계속하여 北宋에 대해 군사적 공세를 취하였으나, 1044年 遼가 西夏를 공격하려고 하자 北宋과 和議를 맺고 신하로 복속할 것을 맹약하는 협정을 맺어 장기간 지속한 宋과 西夏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宋은 西夏의 국왕을 책봉하였고, 宋 정부는 매년 西夏에게 은 7만 냥, 견 15만 필, 차 3만 근을 하사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체결하였다.

北宋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북방의 遼를 정벌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지만 모두 참패하고, 수세적인 전술로 전환하자 오히려 遼가 宋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1004年 遼의 聖宗이 침공했을 때 쌍방은 오랜 전쟁으로 상호 승리에 대해 장담을 할 수 없게 되자 遼는 宋이 제안한 和議를 받아들여 宋은 遼에 매년 銀 10만 냥, 絹 20만 필을 하사하고, 상호 兄弟의 나라가 된다는 "澶淵之盟"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 협정은 北宋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약 120年에 걸쳐 쌍방이 준수하였다.[7]

王安石은 仁宗 시기 개혁성향이 강한 젊은 신진 관료의 입장에서 宋 仁宗에게 강력한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萬言書」를 올려 그의 정치 및 사회개혁을

7) 翦伯贊편, 이진복 김진옥역, 『中國全史』下, 서울: 학민사, 1993, 31-43쪽.

www.kci.go.kr

통한 부국강병의 의지를 천명하였다. 「萬言書」를 올린 시기는 1058年이고, 「明妃曲」이 出世한 것은 1059年이다. 이 시기의 北宋은 내우외환의 혼란에 처하여 대외적으로는 遼와 西夏 등과 같은 강력한 유목민족의 위협과 침공에 시달려 부득불 그들과 和議를 맺었지만, 불평등한 보상으로 국가의 재정은 날로 고갈되기에 이르렀다. 대내적으로는 군왕과 신하들의 우둔함, 대관료와 대지주의 토지 겸병과 특권으로 사회갈등과 계급모순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국력은 날로 쇠퇴하였다. 특히 송 仁宗 慶歷 연간에 발생한 수차례의 농민 起義와 병란을 통하여 北宋 통치 집단은 비로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仁宗은 慶歷 3年에 歐陽脩와 范仲淹 등을 임명하여 정치적 개혁을 책임지도록 하였지만, 귀족과 관료들의 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誣告로 중앙정부에서 축출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王安石은 嘉祐 3年(1058年) 仁宗에게 上書 하여 현행 법도를 대폭 개선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王安石의 「明妃曲」은 仁宗 嘉祐 4年(1059年), 北宋 사회가 누적된 갈등과 모순으로 국력이 피폐해져 가고, 대외적으로는 西夏와 遼의 끊임없는 침략으로 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 하에서 창작되었다.

「明妃曲和王介甫作」과 「和明妃曲」 두 수, 역시 같은 해인 1059年에 歐陽脩가 王安石의 「明妃曲」에 화답하여 지은 시이다. 즉, 歐陽脩는 「明妃曲」이 나온 후, 이 詩를 읽고, 王安石의 견해에 공감하고 지지하기 위해 和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3. 王安石의 「明妃曲」 감상

王安石은 仁宗 嘉祐 4年(1059年), 京城에서 三司度支判官[8]으로 재임할 때,

8) 북송의 관제 중에서 判官은 三司使의 업무를 보좌하는데, 三司使란 정부의 최고 재정 장관으로 지위는 재상보다 낮다. 三司란 국가의 鹽鐵, 戶部, 度支를 담당하는 기구이

www.kci.go.kr

「明妃曲」 두 首를 지었다. 漢代 이후로 昭君을 소재로 한 시가들이 많이 출현하였지만, 「明妃曲」은 王安石의 많은 시가 작품 중에서도 유독 문인들의 많은 관심을 집중시키며 和答의 형태로 긍정적인 평가와 칭찬을 받기도 하였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논쟁을 일으키면서 부정적인 견해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明妃曲」을 통해 王安石은 무엇을 말하려고 의도한 것일까? 아마도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에 위치하여, 찬란한 인문 및 과학기술의 부흥을 선도하던 宋 나라가 부패하고 무능하여 나날이 국력이 쇠퇴하고, 변경은 또다시 西夏와 遼 같은 유목 민족의 침략 아래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흉노로 출가한 昭君의 처지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3-1. 「明妃曲」(一)

明妃初出漢宮時,	명비가 막 한나라 궁궐을 나설 때,
淚濕春風鬢脚垂.	눈물이 아름다운 볼로 흘러내리고, 살쩍이 늘어졌네.
低徊顧影無顏色,	차마 떠나지 못하며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고독하고 애처로워,
尙得君王不自持.	오히려 군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없게 하네.
歸來却怪丹靑手,	군왕이 還宮한 후에 화공을 원망하는데,
入眼平生未曾有.	평생 동안 눈에 드는 아름다운 미녀가 몇이나 있었던고.
意態由來畵不成,	타고 난 자태는 본래 그려 낼 수 없는 것인데,[9]
當時枉殺毛延壽.	당시 군왕은 모연수만 헛되이 죽이고 말았구나.
一去心知更不歸,	궁궐을 떠난 그녀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可憐着盡漢宮衣.	가련하게도 한나라 궁녀의 의상을 모두 갖춰 입었구나.
寄聲欲問塞南事,	명비가 편지를 써 한나라의 일을 물었지만,
只有年年鴻雁飛.	아무 소식 없이 매년 기러기만 오락가락하네.
家人萬里傳消息,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가족이 소식을 전해 오기를,

며, 度支란 전국 재정의 통계와 배분을 담당한다.

9) "意態"란 본래 용모, 풍채, 풍모를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과 품격을 갖춘 "자태"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www.kci.go.kr

好在氈城莫相憶. 흉노 땅에서 잘 지내고 고향은 그리워하지 마세요.
君不見咫尺長門閉阿嬌, 너는 보지 못했느냐! 지척 장문궁에 유폐된 진황후를![10]
人生失意無南北. 인생이란 실의에 처하면 남북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11]

이 시는 내용의 전개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시의 전반부 4구를 보면 오랫동안 후궁에서 고독하게 지낸 昭君이 황제에 대한 마지막 미련마저 포기한 채 離宮하는 모습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양 볼을 적시며 흘러내리고, 산발한 귀밑머리의 昭君의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민을 불러일으키면서 감동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또한 부득불 昭君을 떠나보내야 하는 元帝가 그녀를 바라보면서 끊어 오르는 격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적인 나약함의 면모를 병렬 대비시키며 역설적인 방법으로 昭君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그리고 화공의 고의적인 毁畵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元帝는 昭君의 실물을 처음 마주 대하자 아름다움에 취해 차마 昭君과 작별하기에 너무 미련이 남는 군주의 욕망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이 직접 취사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화공에 의지해야만 하는 군주의 우둔함을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의 4구는 元帝가 사건의 책임을 화공들에게 돌리고, 작자의 이에 대한 비평을 묘사하고 있다. 환궁한 후에 元帝는 오히려 화공을 원망하면서, 평생 눈에 드는 미녀가 몇이나 있었을까? 이것은 우회적인 표현으로 元帝가 평생 보고자 했던 여인은 昭君과 같은 미녀임을 강조하기 위한 수법이다. 그러나 다음의 "천부적인 자태는 그려낼 수 없는 것인데(意態由來畵不成), 당시 군왕은 毛延壽만 헛되이 죽이고 말았다."고[12] 한 이 단락은 작자의 주관적인

10) 阿嬌는 한나라 武帝인 劉徹의 陳皇后를 지칭하는데, 한때 武帝의 총애를 잃고 장문궁으로 유폐되었다.

11) 武建宇・宋文輝 譯,『唐宋八大家詩文集』3, 天津古籍出版社, 1999, 1704-1706쪽.
曹礎基,『中國古代文學』,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2, 669-675쪽.
北京大學古文獻硏究所編,『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2, 6503쪽.
『王安石詩選』, 39-40쪽.

www.kci.go.kr

견해로 주어진 임무와 재능만으로 그림을 통해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이다. 이는 元帝가 그림에 근거하여 미녀를 간택하는 호색함과 우둔함을 풍자하기 위한 설정일 뿐만 아니라, 또한 昭君이 천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아름다운 氣品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삽입한 것이다. 그래서 王安石이 평가한 昭君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용모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기품의 우아함에 있다고 본 것이다.

작자는 이러한 표현을 통하여 순수한 꿈을 失意한 昭君에 대한 연민과 함께 우둔한 元帝에 대한 풍자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昭君이 이미 흉노의 單于한테 출가했는데 이제 毛延壽를 죽이는 것은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오히려 元帝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사건의 책임을 元帝에게 돌리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의 4구는 흉노의 사막에 거주하면서도 漢 나라를 사모하는 昭君의 감정과 정서가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 자기를 몰라주고, 자신을 버린 元帝에 대한 원한이 사무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昭君이 "가련하게도 한나라 궁녀의 의상을 모두 갖춰 입었다."라고 한 표현은 그녀가 역경에 처했음에도 漢나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담대함을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역의 낯선 땅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간절하여 가족에게 서신으로 안부를 물었건만, "아무런 소식 없이 매년 기러기만 오락가락한다."라고 한 것은 생활관습이 달라 아무도 자신의 所懷를 헤아려 주지 못함에 대한 서운한 심정과 심한 고독에 처한 한 나약한 여인의 애절함을 표현한 것인데, 이를 통하여 작자가 昭君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매우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의 4구는 가족들이 昭君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다. 昭君의 편지에 가족들은 "그곳에서 잘 지내고 고향은 그리워하지 마라."

12) 史書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元帝는 화공들의 고의적인 毁畵로 昭君을 총애할 수 없었던 것에 분노하여 모든 화공의 죄를 물어 궁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王安石은 毛延壽 역시 가장 유명한 화공 중의 일원일 뿐이고, 본래 내면의 아름다움은 그림으로 그려 낼 수 없는 것임에도 元帝가 毛延壽를 誤殺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www.kci.go.kr

라는 표현으로 昭君에게 흉노 出嫁의 대임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和答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漢나라 武帝의 皇后인 陳阿嬌가 황제에게 버림받아 지척에 있는 장문궁 중에 유폐된 사건을 거론하면서, 자고이래로 失意한 사람의 입장은 황제로부터 가까이에 있든(남쪽), 혹은 먼 곳에 있든(북쪽), 遠近을 따질 이유가 없다는 말로 위로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작자는 가족들의 서신을 빌어 昭君에게 수년 동안 후궁에 머물렀지만, 황제의 총애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陳阿嬌의 신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고국에서 이런 신세로 살 바에는 차라리 흉노에 가서 皇后가 됨만도 못한 것이다. 그래서 昭君의 운명이 황제 지척에 유폐 당했던 陳阿嬌 보다 오히려 행운이라고 안위하는 것은 대담한 발상의 전환이다. 또 昭君에게 인생살이 중에는 누구나 失意 하기 마련이니 남쪽의 漢 나라에 있든 북쪽 흉노의 땅에 있든 구분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昭君 자신의 운명을 다행으로 받아들이라는 권고는 작자가 昭君의 사건을 담대하고 참신한 시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4구 중의 내용은 이 작품의 주제를 반영하고 있는 곳으로 王安石은 자신의 독특한 관점으로 昭君을 다시는 비련의 원한에 가득 찬 怨婦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이 분명하고 대의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여 칭송을 받는 여장부로 형상화하였다.

3-2.「明妃曲」(二)

明妃初嫁與胡兒,	명비가 막 흉노에게 출가할 때,
氈車百輛皆胡姬.	뒤를 따르는 화려한 수레 백 량에는 모두 흉노 여인들뿐.
含情欲說無語處,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 고독함을 풀 곳이 없어,
傳與琵琶心自知.	다만 비파를 연주하여 마음을 표현하여 자신 스스로만 안다네.
黃金杆拔春風手,	황금으로 만든 撥木은 연주하는 아름다운 손과 조화를 이루며,
彈看飛鴻勸胡酒.	비파를 연주하면서 기러기를 바라보며 흉노의 술을 권한다.
漢宮侍女暗垂淚,	한나라 궁궐에서 온 시녀들은 남몰래 눈물 흘리며 흐느끼고,
沙上行人却回首.	사막 위의 나그네들은 오히려 고개를 돌려 비파소리를 감상하네.

www.kci.go.kr

漢恩自淺胡自深, 한나라의 은혜는 얕지만, 흉노의 情誼는 더욱 깊어지니,
人生樂在相知心, 인생의 즐거움이란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일세.
可怜青冢已蕪沒, 가련한 명비 무덤에는 이미 잡초가 무성한데,
尙有哀弦留至今. 아직도 애절한 비파 소리는 여전히 귓가에 맴돈다.[13]

이 시는 내용의 전개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4구를 보면 昭君이 漢 元帝와 작별하고, 도성을 뒤로 한 채 흉노의 땅으로 떠나가는 凄然한 심경을 묘사하고 있다. 單于는 자신의 皇后로 삼을 昭君을 모셔가기 위해 흉노 여인들을 태운 백 량의 수레를 동원하여 극진하고 성대한 예를 다 갖추었지만, 이것으로 昭君의 고독한 심정을 달랠 수가 없다. 이미 떠나기로 작정한 昭君은 마음속의 所懷를 나눌 수 있는 "知己"라도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이것 역시 부질없어 다만 비파만 끌어안은 채로 자신의 심정을 비파의 선율에 내어 맡긴 모습에서 일신의 욕망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가련한 한 여인의 인간적인 고뇌가 짙게 남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다. 여기서 王安石은 昭君의 입장을 빌어 자신의 처지를 의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王安石이 昭君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나누고 싶었지만"이라고 한 것은 흉금을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는 "知己"를 찾고자 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王安石은 자신을 알아주는 "知己"의 상대로 仁宗을 생각하고, 「萬言書」를 헌상하지만 기대했던 반응이 없자 자신의 정책을 발휘할 수 없음을 알고, 관리가 되고자 하는 기대를 포기하였다. 왜냐하면, 王安石은 자기를 알아주는 군주의 마음을 기대했던 것이지, 고관대작이 되어 부귀영화를 수중에 얻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4구는 흉노의 궁중에서 생활하는 昭君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單于를 시중들면서 "비파를 연주하며 기러기를 바라보면서 흉노의 술을 권한다는" 내용은 비록 몸은 이역 흉노의 땅에 묻혀 지내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사무치기에 계절 따라 남북을 오가는 기러기에 여전히 눈길이 미치

13)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編, 『全宋詩』, 北京大學出版社, 1992, 6503쪽.
『王安石詩選』, 42-43쪽.

www.kci.go.kr

고 있다고 한 것이다. 이때 昭君을 수행하기 위해 漢 궁궐에서 동행한 시녀들은 昭君의 모습을 통해 애처로운 나머지 소리 나지 않게 흐느껴 울면서 昭君을 동정하지만, 單于를 찾아온 빈객들은 오히려 昭君의 비파 연주를 감상하며 도취한다. 王安石은 흉노에서 생활하고 있는 昭君이 비록 부득이 單于의 皇后가 되어 그곳에 적응해 가고 있지만, 漢과 흉노 간에 문화적 차이로 갈등이 일고, 마음속에 교감할 수 있는 "知己"가 없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4구는 흉노의 單于가 昭君에게 황후에 봉하여 극진한 예로 대우하자 "漢 나라의 은혜는 얕지만, 흉노의 은혜가 더욱 깊다."고 하여 中原에서 버림받은 昭君의 입장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표현으로 인해 王安石은 문인들로부터 辛辣한 비난을 감수하고, 이 때문에 문인들은 그와 결별하고 다른 노선을 선택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昭君의 처지에서 본다면 單于야말로 자신을 알아준 군주이기 때문에 작자의 표현이 왜곡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작자가 어떤 이유와 관점으로 이런 표현을 했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일부 구절의 자구 해석에만 매달리는 것은 작자의 의도와 관계없는 편협한 시각이다.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이란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것일세."라고 하면서 昭君이 바라던 "知己"를 만나지 못한 懷才不遇한 心境을 동정하는데, 여기서 王安石은 자신을 昭君으로 변화시켜, 昭君의 사건을 빌려 자신의 懷才不遇한 심정을 고백한 것이다. 王安石의 처지에서 본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知己"를 만나 자신이 구상한 개혁안이 실현되는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에 昭君의 일에 맡겨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잡초가 무성한 昭君 무덤가에서 비파소리가 애절하게 귓가에 울린다." 라고 한 것은 비록 昭君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그녀가 懷才不遇하여 꿈이 실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연민이면서, 그녀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4. 歐陽脩의 和答詩 감상

歐陽脩는 宋나라 仁宗 嘉祐 4年(1059年)에 王安石의 「明妃曲」에 和答하여 「明妃曲和王介甫作」과 「再和明妃曲」을 지었다. 王安石이 仁宗 嘉祐 四年(1059年), 京城에서 三司度支判官으로 재임하면서 「明妃曲」을 지었을 때, 歐陽脩는 嘉祐 3年(1058年)에 翰林學士 겸 龍圖閣 학사의 신분으로 잠시 開封府의 일을 담당하였고, 이어 嘉祐 5年(1060年)에는 樞密副使를 제수 받고, 嘉祐 6年(1061年)에는 參知政事에 임명되었다. 王安石은 神宗 熙寧 2年(1069年)에 參知政事에 임명되었으니 歐陽脩는 정치적으로 항상 王安石의 앞에서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고, 이끌어 주었다.

歐陽脩가 「明妃曲和王介甫作」을 지어 王安石의 「明妃曲」에 和答한 시기는 宋 仁宗 嘉祐 4年(1059年)으로 이 시기에 歐陽脩는 王安石보다 훨씬 높은 직급에 있었지만, 絶體絶命의 위기에 처한 北宋 왕조의 부국강병을 위해 王安石이 제안한 개혁안에 크게 공감하였기 때문에 심중의 所懷를 和答한 것이다. 王安石의 「明妃曲」의 출현은 당시 문단의 거두였던 歐陽脩에게도 일종의 정신적 충격과 감동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당시의 정계나 문단의 실질적 영수에 해당하는 歐陽脩같은 인물이 젊은 하급 관리에 불과한 王安石의 詩에 서둘러 和答하였다는 것은 결코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라 분명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4-1. 「明妃曲和王介甫作」 감상

胡人以鞍馬爲家,	말안장을 집으로 여기고,
射獵爲俗.	활로 사냥하는 것이 흉노의 풍속이다.[14]
泉甘草美無常處,	물이 달고 풀이 좋은 곳을 찾아다니느라 일정한 거처가 없고,
鳥惊獸駭爭馳逐.	날짐승과 들짐승을 놀라게 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쫓아 달리네.

14) 『中國全史下』, 31쪽, "다른 한 부류는 어로와 수렵으로 먹고살며, 수레와 말 잔등이 집인 거란인과 기타 많은 유목민족이다."

www.kci.go.kr

身行不遇中國人, 길을 가는 동안 중원 사람 만날 수가 없어,
馬上自作思歸曲. 말 위에서 스스로 귀향하는 곡을 지었다네.
誰將漢女嫁胡兒, 누가 한나라의 여인을 흉노에게 출가시키려 하는가?
風沙無情貌如玉. 바람과 모래로 삭막한 곳이지만 그녀의 용모는 옥과 같네.
推手爲琵却手琶, 비파의 현을 손으로 밀고 당기어 연주하자,
胡人共聽亦咨嗟. 흉노인 들이 듣고서 모두 슬퍼 탄식하네.
玉顔流落死天涯, 옥같이 고운 얼굴이 타향살이하며 먼 이역에서 죽었지만,
琵琶却傳來漢家. 그녀가 연주하는 비파 노래는 오히려 한나라에 전해졌다네.
漢宮爭按新聲譜, 한나라 궁중의 여인들이 다투어 새로운 비파 곡을 배우니,
遺恨已深聲更苦. 맺힌 한이 이미 깊어져 곡조 소리가 더욱 비통하다네.
纖纖女手生洞房, 신방에서 나는 궁녀들의 섬섬옥수가
學得琵琶不下堂. 비파 곡을 배우느라 당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다.
不識黃雲出塞路, 黃雲이 감도는 변방 길로 나간 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豈知此聲能斷腸! 어찌 비파 곡조에 담긴 소리가 애간장을 끊게 하는 것을 알리오![15]

이 詩는 내용의 전개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의 6구는 정든 漢 나라를 떠난 昭君이 물설고, 낯선 이역 흉노의 땅을 향해 가는 동안 주변의 황량한 경관과 거친 흉노의 습속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시의 내용은 흉노의 거친 생활습속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北宋 시기 거란인의 생활습속과 대단히 유사하다.

安土重遷의 定住 문화에 익숙한 昭君의 눈에 비친 胡地의 생활상과 거친 유목생활을 목격하고, “말 위에서 스스로 귀향하는 곡을 지었다네.”라는 묘사를 통해 작자는 昭君의 심경에 이는 고독과 처량함, 이런 와중에 불현듯 떠오르는 고향을 떠올리는 여인의 심리세계를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두 번째의 6구는 실의에 처해 타향살이하는 昭君의 苦衷을 동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누가 한나라의 여인을 흉노에게 출가시키려 하는가? 바람과 모래로 삭막한 곳이지만 그녀의 용모는 옥과 같네.” 이 표현은 마치 玉과 같이 고운 昭君을 누가 모질게 황량하고, 편벽한 흉노의 땅으로 보냈는가? 라고 되

15) 歐陽脩,『歐陽脩全集』卷八, 北京: 中華書局, 2001. 131쪽

www.kci.go.kr

물으면서 바로 그 사람이 風沙보다 더욱더 무정하다고 강조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리고 고향을 떠올리면서 자작한 곡을 비파로 연주하자 흉노인 마저 모두 감동해서 슬퍼 탄식하는 장면을 통해서 漢 文化에 익숙하지 못한 흉노인 조차 정치적 희생양이 된 昭君의 처지에 대해 동정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昭君이 타향살이하며 먼 이역에서 죽었지만, "그녀가 연주하는 비파 노래는 오히려 漢나라에 전해졌다."라고 한 것은 비록 昭君이 쓸쓸하게 죽었지만, 그녀의 비파 곡이 오히려 漢과 흉노 간에 우호의 실마리가 되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작자가 昭君이 양국 간 和親을 이루기 위해 漢 나라에서 흉노로 가고, 또 그가 지은 비파 곡이 흉노에서 漢 나라로 전입되었다고 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昭君의 희생과 공로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일 것이다.

마지막 6구는 漢 나라에 전해진 昭君의 새로운 비파 곡이 궁중에서 유행하자 궁녀마다 이를 배우기 위해 열심이지만 정작 이 곡조에 담긴 昭君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경계의 말이다. 당시 漢 나라의 입장에서 昭君의 和親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이후에 漢과 흉노 간에 달성된 평화적인 상황으로 인해 漢 왕실은 昭君의 和親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였다.

작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漢 왕실이 昭君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그녀가 남긴 새로운 비파 곡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궁녀들조차 이 새로운 곡조를 배우기 위해 본연의 업무를 잊을 정도로 열심히 배웠다고 표현한 것이다. 나아가 작자의 진정한 의도는 모두 昭君의 새로운 비파 곡에 심취해 있지만, 그 누구도 昭君이 겪은 고통을 깊이 이해할 수 없다는 예리한 풍자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자가 昭君의 흉노 和親 사건을 빌어서 북방의 강자인 遼 정권에 의해 北宋의 국력이 피폐해져 가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4-2.「再和明妃曲」감상

漢宮有佳人,　　한나라 궁궐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지만,

www.kci.go.kr

天子初未識. 천자께서는 당초에 이를 깨닫지 못하고,
一朝隨漢使, 하루아침에 한나라의 사신을 따라
遠嫁單于國. 멀리 흉노의 선우에게 출가하였다네.
絶色天下無, 절세의 미모가 다시는 천하에 없으니,
一失難再得. 한 번 잃으면 다시 얻기는 어려운 일일세.
雖能殺畵工, 비록 화공을 죽일 수가 있겠지만,
於事竟何益. 이런 일이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耳目所及尙如此,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처리함이 이럴진대,
万里安能制夷狄. 어찌 만 리 밖의 夷狄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으리.
漢計誠已拙, 한나라의 계책이란 것이 실로 이렇게 졸렬하였으니,
女色難自誇. 여자의 미모를 스스로 자랑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네.
明妃去時淚, 명비가 떠날 때 흘린 눈물이,
洒向枝上花. 나뭇가지 위의 꽃에 뿌려지고.
狂風日暮起, 광풍은 아침저녁으로 불어,
飄泊落誰家. 떠돌아다니다가 누구 집에 머무를까?
紅顔胜人多薄命, 절세의 미모는 대부분 박명한 법이니,
莫怨東風當自嗟. 봄바람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야 한다네.16)

이 시는 두 번째로 和答한 것인데 내용에 따라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전반부는 漢 나라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는데도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흉노를 따라가게 한 漢 元帝의 무능과 우둔함을 과감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작자는 元帝가 가까이에 있었던 昭君을 빼앗긴 데 대한 증오와 분풀이로 비록 화공을 죽일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힐문한다. 이 표현 속에는 곁에 두었던 미녀조차 화공에게 기만당하여 분별하지 못했으니, 누가 현명한 신하이고? 누가 어리석은 신하인지?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마저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세상일을 어떻게 올바로 결정하고 해결할 수 있겠는가? 라고 단호하게 황제를 책망하고 있다.

작자는 元帝의 두 가지의 결정적인 잘못을 지적하는데, 첫째, 눈과 귀로 보

16) 『歐陽脩全集卷八』, 132쪽.
宋佳・解永會譯, 『唐宋八大家詩文集』2, 1058-1059쪽

www.kci.go.kr

고 듣는 것, 즉 신변의 일마저 처리 못 하는 무능함 때문에 흉노를 제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둘째, 和親이라는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졸렬한 외교정책에 대한 신랄한 성토이다.

후반부는 昭君의 억울함과 원혼을 위로하면서 美人薄命의 경구를 내세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고 있다. 歐陽脩는 昭君의 사건을 내세워 세상의 아름다운 미녀들의 운명은 대부분 박명한 것이라고 다소 모호한 결말을 맺고 있는데 이는 전반부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보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5. 맺는말

작가의 관점에 따라 작품의 내용과 의의는 다른 차이를 갖게 된다. 작가의 관점이 높으면 작품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과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지만, 반대로 관점이 낮으면 작품의 수준과 가치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작가의 관점에 따라 작품의 제재는 새로운 의미로 재탄생할 수 있고, 제재가 구비한 가치에 따라 창의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작가의 관점은 중요하고 참신한 의의와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동시대의 같은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부닥쳐 있었던 王安石과 歐陽脩가 각각 「明妃曲」과 和答詩를 지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다. 「明妃曲」은 王安石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개혁에 대한 열정과 성향이 강렬했을 때 창작하였고, 歐陽脩의 和答詩는 그가 52세로 정계와 문단의 원로였을 때 창작하였다. 王安石이 비록 歐陽脩의 선발과 지도로 정치를 배우면서 관리로 성장해 갔지만, 국가를 부국강병의 길로 개혁하는 방법에서는 王安石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歐陽脩는 王安石의 견해를 무시하지 않고, 王安石의 현실인식과 정치관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하였기 때문에 和答詩를 짓게 된 것이다.

www.kci.go.kr

王安石은 昭君 고사를 철저히 王昭君의 처지에서 재창조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것은 기존의 昭君 고사에서 볼 수 없는 王安石만의 새로운 관점이다. 그래서 王安石은 昭君고사의 사상과 제재를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王安石이 당시 「万言書」를 황제에게 올린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知己"를 얻고자 한 의도인데, 이것이 좌절되자 자신을 昭君으로 대체하고, 昭君의 사건을 빌어 자신의 심중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존 昭君고사에 덧씌워져 있는 昭君고사의 비극성과 怨婦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신을 알아주는 "知己"를 만나 單于와 함께 떠나는 모습으로 昭君을 재창조한 것이다. 王安石은 철저히 昭君의 처지에서 보았기 때문에 漢 나라의 땅이든, 흉노의 땅이든 간에 관계없이 그녀가 "知己"를 만날 수 있고, 마음이 소통될 수 있는 "知己"를 얻는다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王安石은 자신의 개혁안이 仁宗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懷才不遇함 때문이라고 보았고, 昭君이 비록 자기가 바라던 "知己"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單于가 있기에 기회가 온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것은 王安石이 자신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시각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통해 王安石은 昭君을 화공이 그려낼 수 없는 내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적인 기품을 지닌 여장부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기존의 昭君고사 중에는 毛延壽를 대표로 하는 화공 때문에 昭君이 불행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지만, 王安石과 歐陽脩는 이를 화공 탓으로 돌리지 않고, 모두 元帝의 우둔함과 무능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元帝의 책임을 더욱 강조한다. 이것은 미관말직의 화공에게 죄를 덮어씌워 분노를 해결하는 것에서 벗어나 호색한 통치자의 욕망 때문에 초래된 사건이라고 본 것이다. 王安石이 "타고 난 자태는 본래 그려 낼 수 없는 것인데, 당시 군왕은 毛延壽만 헛되이 죽이고 말았구나."라고 한 구절은 이후의 역대 문인들에 의해 "絶唱"으로 인정받는 名句가 되었는데, 이처럼 王安石은 그림을 잘

www.kci.go.kr

못 그린 것이 화공의 잘못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후궁을 선발한 황제에게 잘못이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王安石은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지만, 숭고하고 우아한 昭君의 내적인 아름다움은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는 것이라고 화공을 두둔하면서, 불가능한 방법에 의존한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그는 대담하게 화공 毛延壽의 잘못을 재평가하여 우둔한 元帝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전가하고 있다.

王安石은 「明妃曲」에서 漢의 昭君 고사를 빌어서 北宋 황제의 우둔함을 예리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歐陽脩가 王安石보다 더 비판의 강도를 세운 것은 당시 北宋 정부가 서북방의 실질적 지배자인 西夏와 遼를 견제하지 못하고, 번번이 침략을 허용하고 약탈당하면서도 굴욕적인 외교를 맺어야만 하는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기 위함 때문이다. 즉, 漢 元帝가 자신의 무능함으로 수중에 있는 궁녀마저 내어주는 수모를 겪은 사건을 지적한 것은, 仁宗이 주변에 있는 무능한 관리들의 전횡을 통제하지 못하여 날로 국력이 쇠퇴해 감을 풍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歐陽脩는 仁宗 至和 2年(1055年)에 거란 국모의 생신 축하 사절로 遼 나라를 방문하면서 변경을 오고 가는 도중에 "澶淵之盟"을 이행하기 위해 농민들이 겪는 심각한 폐해를 목격한 바 있다. 당시 歐陽脩 역시 고위 관료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에 자신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漢 元帝의 잘못을 빌어 北宋 仁宗과 관료들의 무능을 비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歐陽脩는 王安石의 「明妃曲」을 계승한 후, 어떤 면에서는 王安石보다 더욱 비판적인 和答을 하였는데, 이는 당시 王安石의 견해가 널리 인정받고, 유행하는 추세를 보이자 이를 지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개혁 의지를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王安石이 改革 變法을 강력하게 시행하기 이전까지 두 사람의 관계는 비교적 원만하였다. 비록 후반기에 정치적인 견해로 두 사람이 반목하지만 그래도 상호 詩文에 대한 문답과 서신 왕래는 멈추지 않았다. 歐陽脩가 和答詩를 한 것은 改革 變法을 추진하기 훨씬 이전 시기인 1059年의 일이다. 이 시기는 상

www.kci.go.kr

호 간에 정치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교류하고 공감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和答詩는 王安石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하는 입장에서 창작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www.kci.go.kr

參考文獻

류영표, 『王安石詩選』, 서울: 문이재, 2003.

권호종, 『歐陽脩詩選』, 서울, 문이재, 2002

김원중 評釋, 『宋詩鑑賞大觀』, 서울: 까치, 1995.

신영복・기세춘 編譯, 『中國歷代詩歌選集』, 서울: 뿌리, 1994.

정유선, 『王安石 詠史詩』, 서울: 학고방, 2013.

翦伯贊편, 이진복 김진옥역, 『中國全史』, 서울: 학민사, 1993.

권호종, 「歐陽脩詩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이근명, 「신법 시행 이전의 王安石과 그 행적」, 역사문화연구, 제34집.

전지연, 「王安石의 정치사상 연구: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장미, 「王安石 詩의 내용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오헌필, 「王安石의 時文에 나타난 出仕와 隱逸」, 중국학논총, 제19집.

이승신, 「歐陽脩의 史家적 면모」,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2집.

송용준, 「歐陽脩의 詩論과 詩」, 중국어문학, 제32집.

歐陽脩, 『歐陽脩全集』, 北京: 中華書局, 2001.

北京大學古文獻研究所編, 『全宋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2.

解永會・宋佳譯, 『唐宋八大家詩文集』2, 天津古籍出版社, 1999.

武建宇・宋文輝譯, 『唐宋八大家詩文集』3, 天津古籍出版社, 1999,

曹礎基, 『中國古代文學』第三冊,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000.

劉咏濤, 「也談王安石明妃曲」, 成都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7.1.

周 玲, 「明妃曲文化意蘊解讀」撫州師專學報, 2001.2.

易淑琼 「閱讀視野嬗變中的王安石明妃曲」 寧夏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05.3.

馬 冀, 「圍繞王安石明妃曲的爭論及其价值」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9.4.

汪國林, 「論北宋文人雅集唱和詩作的議論性與閑適性」 － 以 「明妃曲」唱和與重陽

www.kci.go.kr

之會爲考察中心, 畢節學院學報, 2009.12.
過元琛,「中國文學中王昭君形象的古今演變」,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張文德,「王昭君故事傳承與嬗變」, 南京師范大學 博士學位論文, 2004.
王撫超,「歐陽修詩歌硏究」, 山東師范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趙麗梅,「昭君詩文與昭君戲硏究」,山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www.kci.go.kr

Abstract

The study on Wanganshi's 「Mingfeiqu」 and Ouyangxiu's responding poetry

Yoo, tai-kyu

Mingfeiqu of Wanganshi is the most marvelous, emotionally nurtured and fully imaginative poetry that is about Wangzhaojun. Among the past ancient Chinese poet's works, Wangzhaojun is mostly described as a tragic character. And Han Yuandi is described as a kind emperor who is missing Zhaojun after being deceived but later realizing it. On the other hand, Maoyanshou is described as the one who makes Zhaojun turn out to be the tragic character. Wanganshi's poetry, therefore, is not following the original standard, but recreating Wangzhaojun by using the whole new concept and structure. That's why he'd rather set Han Yuandi as the one who makes Zhaojun a tragic character. In contrast, Zhaojun's Character is changed as a strong and powerful woman. The core of Ouyangxiu's poetry that is to reply Mingfeiqu has got much deeper depth than Wanganshi's. As he perceives, Han Yuandi causes himself misery that even makes his love in the palace fall down. And this is all because he has been cheated by an artist. Moreover, he claims that Han Yuandi is not capable of handling his own responsibilities, which leads the failure in protecting his people from being conquered by foreign power. Thus, he strongly criticizes Beisong-government by revealing Han Yuandi's lame personality and incompetency.

Key words : Wangzhaojun, Yuandi, stupidity, a spiteful woman, heroine, Wanganshi, Ouyangxiu

투 고 일 : 2014. 1. 10. / 심 사 일 : 2014. 1. 20.~ 2014. 2. 10. / 게재확정일 : 2014. 2. 20.

www.kci.go.kr